

# 주간 해외에너지정책 동향

Issue 10 / 2009.3.13

## □ OPEC 총회, 감산목표 이행방안 논의할 듯

- OPEC은 다음주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추가 감산이 아닌 '08년 말에 합의한 총 감산목표 420만b/d의 효과적인 이행방안에 관하여 논의할 것으로 예상됨.
- 세계에너지연구센터(CGES)는 계속되는 유가약세에도 불구하고 OPEC이 3월 정기총회에서 추가 감산을 결정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
- 이는 추가 감산의 경우 세계원유수요가 더욱 위축되어 회원국들의 재정수입이 더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예측에 따른 것임.
- 최근 원유가격은 \$40~\$45/bbl 수준에 그치고 있음.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해 11월 적정유가 수준을 \$75/bbl라고 언급한 바 있음.
- CGES에 따르면, OPEC의 2월 원유생산량은 목표량대비 약 100만b/d 초과한 상태임.
- 사우디아라비아의 최근 원유생산량은 800만b/d 이하로 감산목표를 이미 달성함.
-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카타르의 감산합의 이행률은 약 85% 수준이며, 나이지리아와 리비아는 60~70%, 알제리와 앙골라는 50~60% 수준으로 평가.
-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현 생산량은 목표대비 각각 40만b/d, 22.5만b/d 초과한 수준임.

(Oil&Gas Journal, 2009.3.11)

### NEWS

- OPEC 총회, 합의 이행방안 논의할 듯
- Toshiba, 탄소배출권 판매 사업에 참여
- 일본, 우크라이나 탄소배출권 3,000만 톤 구매 예정
- Tokyo가스, 가정용 고효율 연료전지 상품화 추진
- EPA, '11년까지 업계 온실가스배출 보고서 작성 요구
- ExxonMobil, 경기침체 불구 연간 \$250~300억 투자규모 유지
- 미국 에너지부, '09년 \$25억 추가예산 확보
- 호주, 경기침체 우려 속에서 탄소배출 감축목표 확인
- 호주 Gladston 석탄항, 사이클론으로 운영 중단
- Coal India Ltd., 모잠비크의 석탄광구 채굴권 획득
- Pemex, '09년 개발 및 생산부문 투자 증대 추진
- Ecopetrol, 프랑스 Hocol Colombia 매입
- Chevron, 중립지대의 매장량 증대 목표
- 중동산유국, 달러화 가치변동 등으로 실질 원유 수출액 하락
- 카타르, 중국과 장기 가스수출계약 체결
- UAE, 그리스 기업의 청정에너지 투자 유치
- EU 탄소배출권 가격 회복세
- 영국의 석유 및 가스 기업간 M&A 활동 증가
- 프랑스, 해상풍력발전 가속화
- 스페인, 신재생에너지 전력비중 30% 달성
- Inveravante, 태양열발전소 건설에 \$6억 투자
- Siemens, 덴마크와 세계 최대 규모 해상풍력터빈 계약체결
- 모로코, '15년까지 에너지부문 82억 유로 투자
- 나이지리아, 석유생산량 160만b/d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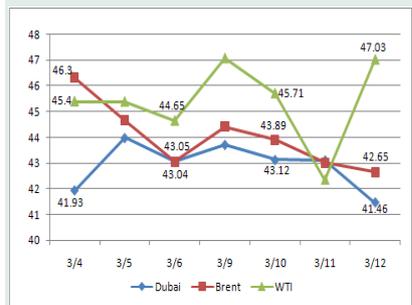
### ANALYSIS

- 유가급락이 산유국에 미친 영향 및 전망
- 카타르, LNG 생산능력 '12년까지 7,700만 톤 전망

### REPORT

- 미국 단기 에너지수급 전망 보고서(3월호)

Oil Prices (Spot, \$/bbl)





## ASIA, AMERICA & MIDDLE EAST

### □ Toshiba, 탄소배출권 판매 사업에 참여

- 일본 Toshiba는 베트남 지역 식품업체와 설립한 합작회사를 통해 베트남 내 식품공장의 폐수에서 배출된 메탄가스를 회수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착수하며, 여기서 얻는 탄소배출권을 일본 기업 등에 판매할 예정이다.
  - 상기 합작회사 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모는 \$300만이며, 동 사의 출자 비율은 51%.
- 동 사는 베트남에서 총 3개의 온실가스 관련 프로젝트를 통해서 '10년까지 약 7,000만 톤의 탄소배출권을 획득할 것으로 전망함.
  - 향후 탄소배출권의 수요전망에 따라 베트남 이외 지역에 대한 진출도 검토할 계획임.

(日本經濟新聞, 2009.3.8)

### □ 일본, 우크라이나 탄소배출권 3,000만 톤 구매 예정

- 일본 정부는 교토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우크라이나에서 약 3,000만 톤의 탄소배출권을 구매할 계획이며, 양국간 합의는 3월 중 이루어질 전망이다.
  -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도 감소되어 탄소배출권 가격이 6개월 전보다 1/3 정도 하락하였음.
  - 이런 이유로 동 정부는 현재 저비용으로 구매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번에 총 1억 톤의 구매 목표량 중 30%를 일시에 구입하는 경우임.
  - 동 국이 해외 정부로부터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에 대한 구매금액은 약 300억 엔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동 정부는 교토의정서 이행기간('08년~'12년)중 총 1억 톤의 탄소배출권을 구매할 방침임.

(日本經濟新聞, 2009.3.9)



## □ Tokyo가스, 가정용 고효율 연료전지 상품화 추진

- 일본 Tokyo가스는 Kyocera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가정용 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SOFC)를 '14년 목표로 상품화하는 계획을 발표
  - 동사가 새롭게 상품화하는 SOFC는 고체고분자형 연료전지(PEFC)에 비해서 잉여열의 회수비율이 낮고 뜨거운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은 적지만 발전효율은 10% 정도 높음.
  - 또한 도시가스 등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개질기(改質器)가 구조상 불필요하기 때문에 저비용으로 제조가능하고 공간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인 차세대형 연료전지로서 주목되고 있음.
- 올 5월부터 판매 예정인 고체고분자형 연료전지 'ENE·FARM'의 판매 가격은 개당 약 320만~약 346만 엔으로, 정부가 구입비용의 절반(상한선 140만 엔)을 보조할 예정이어서, 최종 소비자가격은 150만~200만 엔 정도로 예상됨.

(Fujisankei Business i, 2009.3.11)

## □ EPA, '11년까지 업계 온실가스배출 보고서 작성 요구

-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에너지 다소비산업체에 '11년까지 온실가스배출 보고서 작성을 요구하는 정책제안을 발표하였음. 이번 사업은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배출권총량거래제 시행을 위한 초기 사업으로, 산업계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EPA는 온실가스배출 상한(cap)을 정할 전망이다.
  - EPA는 EU의 '05년 탄소시장 출범 당시 기업에 대한 정확한 배출정보가 부족하여 배출권 가격이 폭락했던 예를 들어, 성공적인 탄소시장 출범을 위해서는 배출정보의 정확성을 강조함.
- 참여대상 기업은 총 13,000개로 미국 온실가스 배출량의 85~90%를 차지함.
  - 구체적으로 에너지 다소비기업인 시멘트, 철강, 전력기업과 화석연료 및 산업화학제품 공급자, 자동차 및 엔진 제조기업, 그 외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간 25,000 톤 이상인 사업체가 대상임.
  - 보고서 제출기한은 '11년까지로, EPA는 민간기업이 배출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첫 해 \$1.6억, 이후 연간 \$1.27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함.

(Platts, 2009.3.10), (Bloomberg, 2009.3.10)

#### □ ExxonMobil, 경기침체 불구 연간 \$250~300억 투자규모 유지

- ExxonMobil은 세계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향후 5년간 매년 \$250~300억으로 책정한 투자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임.
  - 동 사는 세계 원유수요가 '05~'30년간 연평균 1% 증가할 것으로 전망, '15년까지 순 생산능력을 150만boe/d 증대할 계획임.
- Exxonmobil은 상·하류부문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임.
  - '09년에 9개의 주요 프로젝트가 개시될 것이며, 생산이 피크에 달하면 생산량은 48.5만b/d 증대될 것임.
  - 미국과 유럽에 위치한 3개의 정제소에 저유황경유 생산 프로젝트를 추진, 총 \$10억을 투자할 계획임.
  - 상기 프로젝트는 '10년 완공예정으로, 이후 저유황경유 생산량은 14만 b/d 증대될 것임.

(Platts, 2009.3.6)

#### □ 미국 에너지부, '09년 \$25억 추가예산 확보

- 3월 10일 미 상원은 에너지부의 '09년 예산안에 \$25억을 추가 편성하는 안을 승인하였음.
  - 동 법안은 지난 2월 25일 하원을 통과,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3월 11일 서명할 예정임.
  - 에너지부는 회계연도 '09년 예산으로 총 \$270억을 배정받게 됨.
- 이번에 통과된 추가예산안은 부시행정부에서 제출한 것과 큰 차이를 보임.
  - 예산안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에너지 및 환경보호 기술 부문의 예산이 크게 증가한 반면, 부시행정부에서 큰 예산을 배정받았던 전략적 비축유 및 원자력 관련 예산은 크게 삭감되었음.



- 전략적 비축유 예산은 \$3.44억에서 \$2.05억으로 삭감되었으며, Yucca Mountain 원자력폐기물 저장시설 건설 예산은 \$2.9억에서 약 \$1억 가량 삭감되었음.
-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탄소포집·저장을 이용한 무공해 석탄발전소 (FutureGen 프로그램) 건설보다 청정석탄발전 프로젝트에 중점을 두고 있음.
- FutureGen 프로그램은 회계연도 '09년에 예산을 배정받지 못한 반면, 청정석탄발전 프로그램은 총 \$8.8억 가량의 예산을 배정받았음.

(Platts, 2009.3.11)

#### □ 호주, 경기침체 우려 속에서 탄소배출 감축목표 확인

- 호주 정부는 경기침체 우려에 따라 경제성장 둔화를 야기할 수 있는 계획을 연기하자는 요구에 반대하면서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확인함.
  - 호주 기후변화부 Penny Wong 장관에 따르면 탄소거래를 발표한 초안에서 탄소배출량을 '20년까지 '00년 실적대비 5~15%까지 줄이는 목표를 설정함. 이로 인해 호주가 '50년까지 60%의 감축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상기 설정 내용은 배출권거래제와 신재생에너지 목표 확대, 청정기술 및 탄소포집·저장기술에 대한 투자 등이 포함됨.
  - 탄소거래제는 '10년 7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며, 이후 호주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0.1%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IEA 자료에 따르면, 호주의 연료 연소로 인한 탄소배출은 '90년 대비 '00년까지 10년간 31%, '05년까지 45% 증가하였음.
  - 호주 정부는 배출권거래가 시작되면, 초기가격이 탄소 톤당 A\$25가 될 것으로 추정함.

(Bloomberg, 2009.3.10)



## □ 호주 Gladstone 석탄항, 사이클론으로 운영 중단

- 호주 석탄수출터미널인 Gladstone항이 태풍 사이클론으로 인해 지난 8일부터 운영 중단된 상태임.
  - 퀸즈랜드州 북동부에 위치하고 있는 Gladstone항의 운영이 아직 재개되지 않고 있음.
  - Gladstone항을 통해 석탄을 선적하는 기업들은 BHP Billiton Ltd/Plc, Rio Tinto Ltd/Plc, Wesfarmers Ltd. 및 Peabody Energy등임.
  - 동 항구는 연간 7,000만 톤 이상의 선적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 BHP는 일요일, BHP Billiton Mitsubishi Alliance(BMA) 소유의 Hay Point Coal Terminal에서 선적을 재개했다고 전함.
  - 동 터미널은 연간 4,400만 톤의 수출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로 원료탄이 수출되고 있음.

(Paguntaka, 2009.3.11)

## □ Coal India Ltd., 모잠비크의 석탄광구 채굴권 획득

- 인도의 국영 석탄공사인 Coal India Ltd.(CIL)가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2개의 석탄광구 채굴권을 획득함.
  - A1 및 A2 등 2개의 광구에는 원료탄 및 비원료탄이 10억 톤 이상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상기 광구의 생산량 중 15%는 모잠비크가 소유하고 나머지 85%는 인도에 역수출될 예정임.
  - CIL은 자회사인 Coal Videsh와 합작회사인 International Coal Ventures Ltd.를 통해 장기적으로 해외 광산 지분확대를 추진해왔음.

(Viewswire, 2009.3.10)

## □ Pemex, '09년 개발 및 생산부문 투자 증대 추진

- 멕시코의 석유기업 Pemex는 '08년 \$180억을 투자하였으며 이 중 70%는 플랜트 및 장비에 투자되었고 30%는 유정탐사, 운영관리 및 지질탐사에



투자되었음.

- '09년 동 사는 탐사 및 생산, 정제시설에 투자를 더 증대할 계획임.
- Catarell 근해 유전 탐사 및 생산을 위해 '08년 \$34억을 투자하였으며 '09년 \$38억으로 증대할 것임.
  - 동 유전에서는 '08년 100만b/d가 생산되었으며 '09년에는 70만b/d를 생산할 계획이고, '09년~'17년간 평균 40만b/d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동 사는 Ku-Maloob-Zaap(KMZ) 근해 유전사업에 '08년 \$23억을 투자 하였으나, '09년에는 \$22억을 투자할 계획임.
  - 동 유전에서 '08년 70.2만b/d가 생산되었고 '09년에는 80만b/d를 생산할 계획으로 생산량 증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09년~'17년간 평균 70만b/d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멕시코 Veracruz州와 Puebla州에 위치한 Chicontepec 유전 사업에서는 '08년 3.3만b/d가 생산되었으며 '09년 7만b/d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동 유전에서는 '09년~'17년간 연간 1,200개의 유정을 시추해 가스 1,420m<sup>3</sup>/d, 원유 40만b/d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음.

(Business News Americas, 2009.3.9)

## □ Ecopetrol, 프랑스 Hocol Colombia 매입

- 콜롬비아 국영 석유기업 Ecopetrol은 프랑스 Maurel & Prom 기업의 Hocol Colombia를 \$7.48억에 매입하였음.
  - 동 사는 Hocol 매입을 위해 \$5.8억은 현금으로 지불하고 \$1.68억은 운전자본으로 지급할 방침임.
  - 상기 매입계약체결에 따라 Maurel & Prom 주가는 6.51% 상승하였음.
  - 동 사는 지난 2월 한국석유공사 KNOC과 함께 페루의 Petro-Tech을 \$9억에 매입한 직후 Hocol을 인수한 것임.
  - 동 매입에는 Hocol이 콜롬비아의 송유관에 대해 보유하고 있었던 지분



Alto Magdalena 36.1% 및 Oleoducto 21.7%도 포함된 것임. Hocol이 베네수엘라 및 기타 국가에서 보유한 자산은 상기 매입에서 제외되었음.

- Hocol은 콜롬비아 유전에서 '08년 1.5만b/d를 생산하였으며 Ecopetrol은 44.7만b/d를 생산하였음.
- Ecopetrol의 '08년 보유 매장량은 9.85억 배럴이었으며, Hocol은 6,000만 배럴이었음.
- Hocol은 '09년 2.2만b/d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음.

(Business News Americas, 2009.3.10), (Reuters, 2009.3.10)

## □ Chevron, 중립지대의 매장량 증대 목표

- Chevron은 향후 수개월간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간 중립지대 유전의 매장량을 증대하기 위한 대규모 생산기술 테스트를 실시할 계획임.
- 이번에 사용될 기술은 기존의 방법으로는 채취할 수 없었던 중질원유를 생산하는 데에 사용되는 기술이며, 향후 평가결과에 따라 중동전역으로 확대 적용될 방침임.
- Chevron의 이번 계획은 사우디 정부로부터 상기 중립지대에서의 운영권에 대한 30년 연장 허가 획득에 따른 것임.
- '00년 사우디가 상기 중립지대 내 해상유전의 생산권을 보유하고 있던 일본 기업의 생산권을 회수한 바 있어, Chevron의 생산권도 회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되었으나 생산권 연장계약을 획득한 것임.
- 외국기업이 사우디에서 원유생산권을 얻는 경우는 흔하지 않으나, Chevron은 예외적인 경우로 Chevron의 전신이었던 기업들이 '49년 이래 상기 중립지대에서의 50% 생산권을 가진 사우디 정부를 대신하여 생산을 계속해 왔기 때문임.
- 이 계약은 다른 국제석유기업들이 생산하고 싶으나 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한 발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생산량의 4%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Chevron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음.
- 그러나 Chevron은 여전히 극복해야할 기술적 도전에 직면해 있음.



- Chevron은 미국 캘리포니아와 인도네시아에서 증기압입(steamflooding)을 이용하여 중질원유를 생산하는 기술이 있음.
  - ※ 증기압입(steamflooding): 증기를 원유 매장지에 주입하여 원유를 시럽 같은 농도가 되도록 한 후 추출하는 방법
- 그러나, 미국 캘리포니아와 인도네시아 유전은 사암층인 반면, 중립지대의 유전은 사우디와 쿠웨이트의 대부분의 유전과 마찬가지로 석회암 같은 탄산염암층임.
- 증기압입은 탄산염암에서는 사용된 경우가 없는데, 그 이유는 증기가 바위 안에 있는 미네랄을 용해시켜 매장지 및 유정을 막히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Chevron은 '08년의 소규모의 테스트에 이어 금년 여름에 가동할 계획인 대규모의 파일럿 테스트에서 중립지대의 Wafra 유전에 대해 증기압입을 적용하여 상기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지 확인할 계획임.

(The Financial Times, 2009.3.8)

#### □ 중동산유국, 달러화 가치변동 등으로 실질 원유수출액 하락

- OAPEC의 자문기관인 파리 소재의 APRC(Arab Petroleum Research Centre)에 따르면, 아랍 국가들은 지난 5년간 기록적인 원유수출**收入**을 달성했으나 실질수입은 인플레이션 및 미국 달러화 약세로 인해 급격히 낮아졌음.
  - '08년 11개 OAPEC 회원국의 원유 매출규모는 \$6,000억에 달했으나, 실질 수입은 '95년의 달러가치와 산업화된 원유소비국의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거의 \$1,800억이나 감소됨.
  - OAPEC의 '08년 원유수출 명목수입은 \$6,100억이나, '95년 달러가치로는 \$4,400억으로 낮아짐.
  - '07년 명목수입은 \$4,080억이나, 실질수입은 \$3,330억을 하회하였는데, 이는 '07년 기준 원유 가격은 \$69이나, '95년의 달러가치로는 약 \$56.5이기 때문이라고 APRC는 밝히고 있음.



- OAPEC의 '06년 원유 수출수입은 현재가로 \$3,800억이나, 실질수입은 \$3,170억이며, '05년 명목 수출수입은 \$3,160억, 실질수입은 \$2,690억임.
- 동 기구는 원유가격이 평균 \$40~\$50/bbl, OAPEC의 생산량이 1,900만b/d 미만으로 전제하여 평가한 결과, '09년 중동산유국의 원유 수출액은 명목수입 \$3,000억 미만, 실질수입은 \$2,000억이 될 것으로 예상됨.
- 한 석유분석가는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개발수요 증가 및 달러 약세를 고려할 때, 지난 몇 년간의 원유가격 급등은 페르시아~~灣~~ 국가들에는 큰 이득이었으나, '09년 혹은 '10년까지 실질 원유가격의 하락은 실제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음.

(Emirates Business 24/7, 2009.3.6)

## □ 카타르, 중국과 장기 가스수출계약 체결

- 카타르는 '10년~'11년 중 수출을 시작으로 25년 동안 연간 총 500만 톤의 가스를 중국에 수출하기로 하였음.
- 이 중 연간 300만 톤은 '10년부터 Petrochina에, 연간 200만 톤은 '10년~'11년 중에 CNOOC(China National Offshore Oil Company)에 공급 개시할 예정임.
- 카타르가 연간 200만 톤의 LNG를 CNOOC에 공급하기로 한 계약은 '08년 6월에 체결되었음.
- CNOOC의 회장은 카타르와 중국의 에너지협력에 있어서 상호보완적인 면을 강조하였음.
- 중국은 세계 최대 LNG 시장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와 같은 청정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힘.
- 중국은 카타르의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시장이 될 것이며, 카타르는 중국 시장에 대해서 안정적인 공급자가 될 수 있음
- CNOOC은 중국 LNG 시장의 선도적인 기업으로서 중국에서는 유일하게



LNG 인수기지와 용량을 갖추고 있음.

- 동 사는 중국의 증가하는 에너지수요에 대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09년에는 공격적인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음.
- 동 사는 현재 연간 1,300만 톤의 LNG를 공급받고 있으며, 이를 '20년까지 연간 6,000만 톤으로 증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음.

(The Peninsula, 2009.3.8)

#### □ UAE, 그리스 기업의 청정에너지 투자 유치

- 그리스의 해양 및 금융기업인 Portland Group은 UAE의 풍력 및 태양에너지 개발사업에 1억 유로를 우선 투자하기로 하였음.
  - Portland Group은 UAE의 풍력 및 태양에너지 개발잠재력이 크며, Dubai가 궁극적으로 세계 최대 태양에너지 개발지역으로 부각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동 사는 1억 유로 규모의 20MW 설치 목표로 초기 투자를 추진하지만 향후 150MW로 확대할 계획임.
- Abu Dhabi가 중동지역의 신재생에너지 허브 선점을 주도하는 가운데 UAE의 신재생 청정에너지에 대한 정책추진, 에너지수요와 석유의존도 감축노력에 따라 국제적 투자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임.

(Gulf News, 2009.3.7)



## EUROPE & AFRICA

### □ EU 탄소배출권 가격 회복세

- 지난 2월 탄소배출권 가격이 급락한 이후 EU 역내 발전회사들이 대량 구매함에 따라 배출권 거래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3월 10일 런던 기후거래소에서 거래된 EU CO<sub>2</sub> 배출권의 금년 12월 인도분 가격은 전일대비 3.1% 상승한 12.01 유로(\$15.28)를 기록하였음.
  - EU 탄소배출권 가격은 '08년 상반기 톤당 30 유로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줄곧 내림세를 보이며 지난 2월 16일 8.40 유로까지 하락한 바 있음.
  - 탄소배출권 가격이 급락한 것은 생산감소로 배출량이 감소하고 자금이 부족한 기업들이 탄소배출권을 매도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 배출권거래 전문가에 따르면, EU가 배출권거래제 프로그램을 개편할 예정이어서 배출권가격이 현재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은 희박함.
  - 또한 Scottish Power 등 일부 기업들은 '12년 이후 사용할 목적으로 배출권을 보유·구매하고 있어 가격상승 요인이 되고 있음.

(Bloomberg, 2009.3.10)

### □ 영국의 석유 및 가스 기업간 M&A 활동 증가

- FBD(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에 따르면, '08년 영국의 석유 및 가스 기업들간 M&A가 70% 이상 증가함. 이는 대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를 인수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임.
  - '08년 7월 유가가 \$147/bbl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60% 이상의 유가하락으로 석유 및 가스 기업의 가치가 떨어졌으며, 자금력이 충분한 기업에게 보다 싼 가격의 거래가 주어짐.
  - FBD는 세계적으로 M&A 활동이 둔화됨에도 불구하고 영국내 M&A는 증가했다고 밝힘.
  -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을 포함한 거래액은 '08년 183% 증가하여 21억



파운드를 기록하였으며, 거래건수의 경우 73%가 늘어난 52건을 보임.

- '08년 산업계의 세계적 M&A 거래는 전년대비 51% 이상 증가했지만, 거래액은 18% 감소하여 1,460억 파운드를 기록함.
- FBD의 기업파트너인 Simon Marchant는 이와 같은 추세가 '09년에 보다 증가될 전망이며,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비용 및 수익의 시너지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재무상태가 건실한 기업의 인수를 추진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Oil & Gas Journal, 2009.3.11)

## □ 프랑스, 해상풍력발전 가속화

- 프랑스는 '20년까지 발전용량 5,000MW~6,000MW 설치를 목표로 해상풍력발전 개발을 가속화할 방침임.
- 프랑스 환경에너지부 Borloo 장관은 상기 계획 추진과 관련 5곳의 풍력터빈 설치 예상지역의 지방정부에게 부지선정에 관련된 지방정부 차원의 협의 진행을 요청하였음.
- 동 계획에 적용되는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해당지역별 관계자들 간에 개발과 관련한 제약조건들의 검토를 거쳐, 해상풍력발전에 유리한 지역선정을 위한 협의 및 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 동 장관은 Grenelle 환경법안이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08년 11월 17일 프랑스의 신재생에너지개발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동 계획은 '20년까지 석유 2,000만 톤에 해당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의 증대를 통해, 에너지 총 소비량 중 신재생에너지의 최소 사용비율을 23%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정함.

(MEEDDAT, 2009.3.10)

## □ 스페인, 신재생에너지 전력비중 30% 달성

- 스페인 전력기업 Red Electrica(REE)는 경제위기로 인한 상대적인 전력수요 감소와 수력 및 풍력발전 증가로 '09년 1월과 2월에 스페인 발전원의 3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였다고 발표하였음.

- 이는 '01년 EU가 제정한 '1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 목표치인 29.4% 달성을 의미하며, '20년 EU 목표치인 40%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09년 1월, 2월의 전력 수요는 각각 '08년 동기 대비 2.9%, 9.8% 감소하였음.
- 강우량 증대로 '09년 1월부터 3월 6일까지의 수력발전량은 전년동기 대비 126.5% 증가하였으며, 2월 발전원의 비중은 수력발전 15.6%, 풍력발전 15.8%를 기록하였음.
- 이러한 수치는 비록 여름에 감소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강우량 수준이 일정할 경우 '09년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도 30% 수준을 웃돌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08년 풍력 및 수력발전을 통한 발전원의 비중은 18%를 기록한 바 있음.
- 풍력발전기업협회는 스페인이 풍력발전으로 '08년 화석연료 수입에 따르는 비용 12억 유로 절감, 4만개의 고용 창출 및 2,000만 톤(스페인 국가배출량의 5%)의 CO<sub>2</sub> 감축 효과를 얻었다고 발표하였음.

(El Pais, 2009.3.9)

## □ Inveravante, 태양열발전소 건설에 6억 유로 투자

- 스페인 에너지기업 Inveravante는 Andaluca州의 Sevilla와 Extremadura州의 Badajoz 2개 지역에 Ibereolica와의 기술협력으로 태양열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6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
  - Inveravante는 스페인 태양열발전업계의 선두주자인 Ibereolica와의 협력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부문 사업을 개발하고자 함.
  - 상기 2개의 발전소는 각각 발전용량이 50MW로 200ha의 부지에 건설될 것이며 공사소요기간은 18~24개월로 예상됨.
- 상기 건설로 공사기간 중에는 천여 명의 고용효과가 예상되며 발전소가동 시 백여 명의 고용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태양열발전소는 생산과정에서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고 태양광발전소보다



효율이 5배가 더 뛰어난 것으로 평가됨.

(Laopinióncoruña, 2009.3.10)

(Europa Press, 2009.3.10), (Cinco días, 2009.3.11)

## □ Siemens, 덴마크와 세계 최대규모 해상풍력터빈 계약체결

- Siemens는 덴마크 Dong Energy가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북유럽 해상풍력 단지에 해상풍력터빈 500기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함.
  - 동 계약의 규모는 약 20억 유로로 전체 풍력터빈의 발전용량은 1,800MW이며, 1기당 용량은 3.6MW임.
  - Siemens와 Dong Energy는 '91년 세계 최초로 덴마크 Vindeby에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건설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많은 해상프로젝트에 공동으로 참여해 옴.
    - ※ Dong Energy는 덴마크의 대표 에너지기업으로 현재 가동 중인 세계 풍력발전 단지의 절반 가량을 건설함.
- 동 계약은 Siemens가 앞으로 해상풍력터빈 공급부문에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며, 지속가능발전분야에서 Dong Energy의 입지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 또한, 현재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기술인 해상풍력 사업의 산업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Siemens, 2009.3.6)

## □ 모로코, '15년까지 에너지부문 82억 유로 투자 계획

- 모로코 에너지광물부는 '1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에너지부문의 전략 실행에 약 82억 유로를 투자하겠다고 밝힘.
  - 동 투자사업의 목표는 천연에너지원의 개발을 통한 전력공급의 증대와 현재 4%인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에너지 총 생산량의 10%까지 확대하는 것임.
  - 또한, 에너지효율성 강화 및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 청정에너지 사용을 통한 환경보전 및 천연자원의 보존, 에너지관련 부문 R&D 강화와 에너지 서비스 확대 및 관련 산업부문의 일자리 창출 등의 계획도 포함됨.



- 현재 모로코는 에너지 총 공급량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08년에는 에너지비용의 87%인 약 650만 유로에 해당하는 금액이 석유 소비로 지출됨.

(Ministère de l'Énergie, 2009.3.6)

## □ 나이지리아, 원유생산량 감소로 재정적자 악화

- 나이지리아 대통령 Umaru Yar'Adu는 나이지리아의 원유생산량이 최근 160만b/d로 감소했다고 밝힘.
  - 나이지리아는 세계 8위 원유수출국으로 '08년 원유생산량은 약 200만b/d였으나, 최근 OPEC의 석유쿼터 적용문제와 원유생산지역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폭력사태가 석유생산량 감소의 주원인이 됨.
  - '09년 목표 생산량은 221만b/d이고 '10년에는 400만b/d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며, 가격은 \$45/bbl을 기준('08년 \$59)으로 설정함.
- Umaru Yar'Adu 대통령은 생산량 감소와 가격 하락이 지속된다면 '09년 재정적자는 GDP의 5%를 초과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함.
  - 정부의 예산안에 따른 재정적자는 GDP의 3.02%에 해당하는 \$210억 정도이나 '09년 생산량이 현재 수준으로 지속되고 가격도 \$45/bbl에서 \$40/bbl로 하락하게 된다면 재정적자는 GDP의 5.24%로 증가할 것이라고 함.
  - 세계은행에 따르면 나이지리아는 외화유입 총액의 90%를 원유 수출을 통해 조달하지만, 최근 3년 동안 남부 니제르 델타 지역 무장세력의 폭력사태로 인해 생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상기 문제들은 국가소득에도 반영되어 외화보유액이 '08년 12월 \$572억에서 '09년 2월에는 \$500억으로 급격히 감소함.

(AFP, 2009.3.10)



## 1. 유가급락이 산유국에 미친 영향 및 전망

### □ 개요

- 산유국들은 최근 유가급락 및 경기침체로 인해 재정수입 감소, 투자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특히 고유가 시기에 대다수 산유국들이 오일머니로 운용하는 국부펀드 (sovereign wealth funds)를 남용한 결과, 유가하락으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와 함께 심각한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현 원유소비국 및 석유메이저들에게는 상황이 산유국에 좋은 조건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되고 있음.

### □ 세부내용

- 유가급락이 산유국에 미친 영향
  - 현 유가급락 상황에서 산유국들이 직면한 문제점은 대규모 자금 유입으로 인한 인플레이, 수입재화 소비 증가, 원유에 대한 국가경제의 의존도 심화로 국제 원유가격 변동에 취약하다는 것임.
  - 특히 오일머니로 축적한 국부펀드(SWFs) 남용으로 인한 문제와 산유국 금융기관이 해외금융기관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세계 신용경색에 따른 취약성이 높아졌음.
  -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은 자국통화 가치 하락으로 심각한 금융위기를 겪고 있으며, 특히 달러화로 대출을 제공한 은행들의 문제가 심각함.
    - ※ 러시아 루블화는 달러대비 35%, 카자흐 텡게화는 24% 하락.
  - 지난 5년간 이란과 베네수엘라는 국부펀드를 대외 영향력 강화에 사용 해왔음. 베네수엘라는 영국 좌파정권의 정치자금을 제공하거나, 라틴아메리카 및 캐리비안 지역에서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영향력을 강화해 왔음. 이에 이란과 베네수엘라는 OPEC내 강경국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입 감소를 우려하여 추가감축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없는 상황임.



○ 현 위기의 특성

- 현 유가급락 상황은 '90년대의 상황과 전혀 다르게 인식됨. '90년대에는 유가가 장기간에 걸쳐 하락했던 바 원유생산국에 큰 타격이 없었을 뿐 아니라, 북해 및 멕시코만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OPEC이 전략적으로 유가하락을 유도한 면이 있음. 그러나 현 유가급락으로 인한 산유국의 위기가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세계의 지정학적 역학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임.
- 즉, 산유국의 입지가 약화되고, 반면 일부 석유다소비국과 석유메이저기업들은 좋은 조건의 투자기회를 얻게 되어 산유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가 예상됨.
  - ※ '90년대에 신생독립국이었던 카자흐스탄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에 카자흐 최대 유전인 Kashagan 유전개발에 좋은 조건으로 참여를 허용한 것이 좋은 예임.

○ 산유국의 대응 정책 및 에너지 다소비국의 전략

-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산업다각화 및 사회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대외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임.
  - 일부 산유국들은 대외 영향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특히 러시아는 독립 이후 서방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구소련 국가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하고자 함. 또한 이란은 더욱 극단적인 경우로, 자원감소에 따른 대외 영향력 약화를 우려하여 테러 자금지원 및 핵개발을 추구하고 있음.
  - 에너지 다소비국이면서 산유국인 중국은 개발투자 및 원조를 이용하여 산유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시도할 것으로 보임. 즉, 산유국에 경제 원조를 제공하고 SOC를 건설하는 등 자원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전략을 구사할 전망이다.
- 결론적으로 유가급락에 따른 위기가 산유국에 직접적인 위기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석유소비국에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Securing America's Future energy, Intelligence Report 2009.3.2)



## 2. 카타르, LNG 생산능력 '12년까지 7,700만 톤 전망

### □ 개요

- 카타르는 일부 LNG 트레인 가동연기에도 불구하고, '12년 말까지 LNG 생산 및 수출능력을 현재 연간 3,870만 톤(RasGas, 연간 2,100만 톤; Qatargas, 연간 1,770만 톤)에서 연간 7,700만 톤으로 증가시키려는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 RasGas 액화단지의 모든 LNG 트레인을 '09년 말까지 총 가동할 예정인 바, 동사의 총 LNG 생산능력은 연간 3,660만 톤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Qatargas의 총 LNG 생산능력을 연간 4,200만 톤으로 증대하려는 목표는 '11년~'12년 중에 달성될 것으로 예상됨.

### □ 세부 내용

- 카타르의 RasGas는 현재 건설 중인 트레인 6 및 7을 포함하여 RasGas 액화단지의 모든 LNG 트레인을 '09년 말까지 가동할 예정인 바, 동사의 총 LNG 생산능력은 연간 3,660만 톤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트레인 6 및 7의 생산능력은 각각 연간 780만 톤이며, 트레인 6은 이번 3월 중, 트레인 7은 연내에 가동예정임.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Qatargas의 인력 및 일부 자재·장비 부족으로 당초 예정보다 가동시기가 지연되는 것임.
  - RasGas는 트레인 6 및 7의 완공시 27대의 메탄선 구입 등 \$200억을 투자할 계획임.
  - 트레인 6의 가동즉시 RasGas는 연간 460만 톤의 LNG 수출계약을 체결한 이탈리아의 Edison Gas에 LNG를 인도 개시함. 이와 때를 같이하여 North Adriatic LNG 터미널도 가동을 개시할 예정임.
  - 또한 RasGas는 인도의 Petronet에 연간 250만 톤의 LNG를 수출할 예정임. 당초 계약에서는 LNG가 Kochi 터미널로 인도되기로 하였으나, 동 터미널의 미완공으로 인해 Dahej로 인도될 계획임.



- 또한, Qatargas의 총 LNG 생산능력을 연간 4,200만 톤으로 증대하려는 목표는 '11년~'12년 중에 달성될 것으로 예상됨.
  - Qatargas 1 프로젝트에서는 이미 각 연간 330만 톤의 생산능력을 가진 3개 트레인에서 對일본 및 스페인 LNG 수출을 하고 있음.
  - Qatargas 2 프로젝트는 Qatargas 액화단지의 트레인 4 및 5를 건설하는 것이며, 각 트레인의 LNG 생산능력은 연간 780만 톤으로 금년 4월 중 對영국 수출을 개시할 예정임. 對영국 LNG 수출량은 영국의 천연가스 소비량의 20%에 달하는 양임.
  - Qatargas 3 프로젝트는 연간 780만 톤의 LNG 생산능력을 지닌 Qatargas 액화단지의 트레인 6을 건설하는 것임. 동 트레인에서 생산된 LNG는 주로 아프리카 시장에 공급될 예정이며, 당초 '09년 11월 가동예정이었으나 '10년으로 연기되었음.
  - Qatargas 4 프로젝트는 연간 780만 톤의 LNG 생산능력을 지닌 Qatargas 액화단지의 트레인 7을 건설하는 것으로, 동 트레인은 '10년 말에 가동 개시할 예정이었으나, 트레인의 일부 유닛에 처리기술을 제공하는 BASF에 따르면, '11년이나 '12년에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Qatargas 3 및 4 프로젝트는 對유럽, 미국 및 영국 LNG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일부 LNG 트레인 가동연기에도 불구하고 RasGas의 트레인 6 및 7의 금년 중 가동 및 Qatargas의 여러 프로젝트 추진으로, 카타르의 LNG 생산 및 수출용량을 '12년 말까지 연간 7,700만 톤으로 증대하려는 목표는 성취될 것으로 예상됨.

(Arab Oil & Gas, 2009.3.1), (ArabianBusiness.com, 2009.3.5)



## 미국 단기 에너지수급 전망 보고서(3월호)

- 미국 에너지부 산하 EIA는 국내외 에너지원별 수급 및 가격 등에 대한 전망을 다룬 단기 에너지수급 전망 보고서를 3월 10일 발표하였음.

### □ 주요 내용

- 세계 석유수급 전망
  - '08년 하반기 유가 급락 이후, 세계 석유시장은 '09년 들어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이며 동 추세는 '09년 하반기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 향후 유가는 세계 경기회복 속도에 크게 좌우될 것이나, OECD 상업적 채고량 및 OPEC의 잉여생산능력이 높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유가급등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됨.

세계 석유수급 전망

(단위: 백만 b/d)

구분	2007	2008	2009
수요(A)	85.65	84.27	85.15
OPEC 공급(B)	35.71	33.78	35.44
비OPEC 공급(C)	49.75	49.76	49.95
공급(B+C)	85.46	83.53	85.39
채고변동**	- 0.19	- 0.73	0.24

\*\* 반올림으로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09년 세계 원유수요 및 OECD 원유수요는 각각 140만b/d, 160만b/d 감소할 전망이다.
- '09년 후반 세계 경제가 회복세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 '10년 세계 원유수요는 90만b/d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OPEC의 '09년 1/4분기 원유 생산량은 200만b/d 감소한 2,860만b/d를 기록, '03년 1/4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 원유를 제외한 OPEC의 액체연료(non-crude liquids) 생산량은 '09년과 '10년에 각각 41만b/d, 74만b/d 증가할 것임.
- 세계 원유수요 감소, NGL 생산량 증가, 향후 2년간의 OPEC의 원유생산 능력 증가를 감안하면, OPEC의 잉여생산능력은 동 기간에 400~500만 b/d를 기록할 전망이다.
- 비OPEC의 원유 생산량은 향후 2년간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프로젝트 및 시추사업 지연, 생산율의 급격한 하락에 따른 것임.
  - 비OPEC의 원유생산량은 '00~'07년간 연간 57만b/d 증가해왔으나, '08년 30만b/d 감소한 바 있음.
- 유가 전망
  - WTI 연 평균유가는 '09년과 '10년에 각각 \$42/bbl, \$53/bbl로 전망됨.
  - 미국의 '08년 휘발유가격은 \$3.26/gallon을 기록하였으나, '09년 및 '10년에는 각각 \$1.96/gallon, \$2.18/gallon을 기록할 전망이다.
  - 미국 경유가격은 '09년과 '10년에 각각 \$2.19/gallon, \$2.51/gallon을 기록할 것임.
- 미국 석유수급 전망
  - 미국의 '09년 원유 생산량은 전년대비 40만b/d 증가한 536만b/d, '10년에는 15만b/d 증가할 전망이다.
  - '08년 상반기 소매가격의 상승과 하반기 세계 경기 침체로, '08년 미국의 원유 및 액체연료소비는 전년 대비 6.1% 하락하였음.
  - 미국의 '09년 총 액체연료소비는 42만b/d 감소, '10년에는 21만b/d 증가할 전망이다.
- 천연가스수급 전망
  - 미국의 '09년 천연가스 소비는 전년대비 1.3% 하락한 17.73억m<sup>3</sup>/d가 될 것이며, '10년에는 0.4% 상승한 약 17.80m<sup>3</sup>/d로 전망됨.



- 특히 산업부문의 천연가스 소비는 '09년 들어 약 6% 하락하였으나, '10년에는 경기회복에 따라 소량 증가할 전망이다.
  - '09년 전력부문의 천연가스 소비량은 0.4%, '10년에는 2%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가정 및 상업부문의 소비감소로 상쇄될 것임.
  - 미국의 '09년 천연가스 생산량은 15.96억m<sup>3</sup>/d, '10년에는 0.8% 하락한 15.83억m<sup>3</sup>/d를 기록할 전망이다.
  - '09년 3월 기준, 가스를 생산하고 있는 가스정은 916개로 이는 '08년 8월 대비 43% 감소한 것임.
  - 이에 따라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왔던 미국 천연가스 생산량은 '09년 하반기 이후 감소할 전망이다.
  - '09년 LNG 수입량은 전년대비 소량 증가한 107.6억m<sup>3</sup>를 기록할 전망이다.
  - 미국은 카타르, 인도네시아, 예멘으로부터 LNG 수입을 개시할 예정이나, 시기는 확정된 바 없음.
  - '09년 파이프라인을 통한 캐나다산 천연가스 수입량은 9.4% 감소할 전망이다.
- 천연가스가격 전망
- '09년과 '10년의 Henry Hub 현물가격은 각각 \$4.67/Mcf, \$5.87/Mcf을 기록할 전망이다.
  - '09년 2월 Henry Hub 평균 현물가격은 \$4.65/Mcf로, 이는 1월에 비해 거의 \$0.75/Mcf 하락한 것임.
  - 경기침체에 따라 천연가스 현물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09년 말에는 \$4.0/Mcf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동 추세가 지속되면 천연가스가 기저발전용 석탄 대체재로서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전력수급 전망
- '09년 전력소비는 전년대비 1.7% 하락, 산업부문의 전력 소비량은 6.4% 하락할 전망이다.



- 전력가격 전망
  - '09년 가정용 평균 전력가격은 전년대비 1.1% 상승한 11.4¢/kWh, '10년에는 1.8% 상승한 11.6¢/kWh로 전망됨.
  - 발전용 연료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유틸리티 기업들은 연료 및 도매 전력 구매를 위해 소요되는 신용확보 비용 상승을 이유로 전력가격을 소폭 인상할 계획임.
- 석탄수급 전망
  - 미국의 '09년 석탄 생산량은 전년대비 4.9% 감소한 10.9억 short ton, '10년에는 1.8% 증가한 11억 short ton을 기록할 전망이다.
  - 미국의 석탄 수출량은 세계 수요감소 및 주요 석탄 생산·수출국의 공급 정상화로 11.8% 감소할 전망이다.
  - 전력소비 감소 및 기타 발전원 사용 증가로 인해 미국의 '09년 발전 부문의 석탄 소비량 전년대비 1.7% 하락할 전망이다.

## □ 시사점

- OPEC의 '09년 1/4분기 원유 생산량은 200만b/d 감소한 2,860만b/d를 기록할 전망이다.
  - 동 감소분은 EIA가 2월 전망한 160만b/d 대비 40만b/d 추가 하락한 것으로, OPEC의 원유 생산량은 '03년 1/4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 EIA는 2월 단기전망에서 비OPEC의 원유 생산량이 향후 2년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프로젝트 지연으로 인해 향후 2년간 '08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 EIA는 OPEC의 생산량 감소와 비OPEC의 생산량 정체에도 불구하고 세계 원유가격은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 이는 세계 원유수요 감소와 원유를 제외한 액체연료생산의 증가, 일부 OPEC국가의 생산능력증대로 인해 OPEC의 잉여생산능력이 향후 2년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데 따른 것임.

(EIA Short-Term Energy Outlook, 2009.3.10)